



한원집

CONTENTS

- 01. TECHNOLOGY(신기술 소개)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 02. FOCUS(현장소개) 모두의 염원이 함께하는 공간, 구리가정교회 별관
자연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한원집
- 03. PEOPLE(직원 소개) 우리는 선원건설 모델 3인방
- 04. AFTER SERVICE 벽돌 마감 건축물 누수 발생 및 방지 대책
- 05. COLUMN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06. NEWS 사내 활동 / 이모저모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 기술 트렌드 소개-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작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의학의 발전,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증가 하였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인과 기계화, 산업화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의 수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인구 피라미드 구성 중 사회적 약자 층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불편한 생활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이제는 모든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들, '소수들을 위한' 이란 문구에 관심이 쏠아지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대다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으로 확장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범용 디자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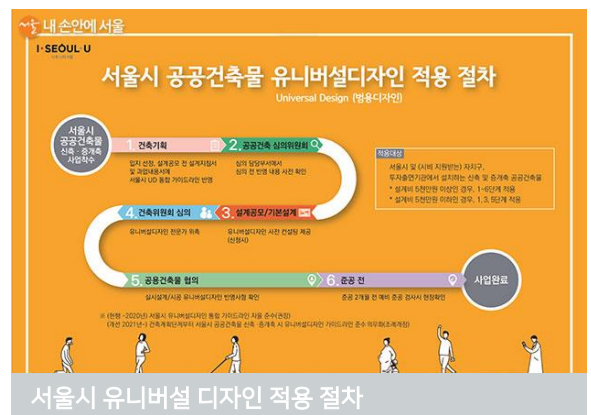
라고 하는 것이 바로 UD이다. 이 UD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일회용품, 주택이나 도로의 설계 등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UD는 특별한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1.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2. 사용상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3. 간단하고 직관적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4.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5. 실수를 감안 (Tolerance for Error)
6.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7. 접근하고 사용하기 적절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위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UD는 사회적 적용 범위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부딪히는 장애물을 없애자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적용·사용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12개의 복지시설에 적용한 후 2017년 통합 가이드 라인을 완성하였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이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2020년 서울시는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 기술 트렌드 소개 -

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1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인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은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UD를 적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강북구 수유동의 유니버설 디자인 하우스

2020년 9월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에서 강북구 수유동에 UD를 적용한 시범 주택을 시공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UD를 주택에 적용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시공 소식에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 주택과 다르게 휠체어 사용자와 목발 사용자,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요소인 턱의 높이를 2cm 이하로 설계하여 화장실과 환관문 및 공용 복도 통행이 자유롭도록 만들었다. 설계부터 공사까지 일반 주택 비용보다 20%~30%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단점은 실제 건설하는 건설사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겨졌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관으로 2006년부터 UD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카드 단말기와 버스 하차벨을 융합하여 정차역명이 벨에 시각적으로 나타나서 하차시 출구 혼잡 현상을 방지하고, 보편적인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까지 배려된 작품이 당선되었다.

아포레퍼시픽 바디워시 제품에도 UD가 적용되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점자를 밤하늘의 별 형태로 디자인하여 모두가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모레퍼시픽 유니버설 디자인 점자

선원건설 현장에서도 UD 적용 모습을 볼 수 있다. 구리가정교회 별관 현장에서는 출입문에 흔히 볼 수 있는 문턱을 제거하여 출입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제거했다.



구리가정교회 별관 현장

디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할과 의미는 크게 달라졌고,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형태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선원건설은 U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가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모두의 염원이 함께하는 공간, 구리가정교회 별관



완벽한 공간 시공으로 교회의 가치를 한단계 더 높인다.

'검암산에서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한반도 모양의 구리시에 도착하게 된다.

구리시는 북쪽으로는 남양주시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배산임수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풍수학적으로 좋은 기운을 품고 있는 구리시는 예로부터 왕과 왕후의 무덤을 모시는 신성한 지역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구리가정교회는 1964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구리 통일교회로 창립한 후 2000년 12월에 현재 위치한 교문동에 교회당을 건축하며 이전하였다.

통일가(家)의 신성한 성지였던 이곳의 뿌리와 역사를 지켜나가고자 구리가정교회는 통일가(家)의 역사적 물

건들을 보존·전시하며 통일가(家)의 역사와 의미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다.

구리가정교회는 통일가(家)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3년 이상의 고민과 정성을 들였으며 2020년 실제 실행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구리가정교회 별관과 교문리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선원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구리가정교회 별관에는 구리 성지의 물품들이 전시되는 전시관이 들어선다.

구리가정교회 별관의 공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통일가(家)에서는 중요한 공간이다. 오늘 이곳을 만들어 나가는 박부영 현장소장과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모두의 염원이 함께하는 공간, 구리가정교회 별관



어느 한곳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구리가정교회 별관(이하 별관)은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78평 규모로서 전시실과 대성전 그리고 사무실이 들어 가는 종교시설이다.

별관 공사 뿐 아니라 현장 옆에는 교문동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문동 근린생활시설은 지상2층 74평 규모로 수련 활동을 하는 장소로 사용 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별관은 74% 공정율로 건물의 외벽 석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석재 공사만 완료되면 위엄 있는 외관 모습을 볼 수 있다.

교문동 근린생활시설도 동일한 공정율을 달성하며 최고의 수련활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매진하고 있다. 외벽은 점토 벽돌과 화강석으로 마감되었으며 수련생들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하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개선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처음 발령을 받으면 현장을 미리 답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 공사가 수행 될 땅의 현재 상태와 규모를 알고 있어야 적합한 공사 수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접한 별관 부지는 크고 작은 나무들과 방치된 쓰

레기로 인해 출입하기가 어려워 보였으나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다면 출입이 개선될 뿐 아니라 원활한 자체적재와 장비 반입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구리시에는 섭리적 염원이 함께하는 통일교회 수련원이 위치해 있었다. 수련원이 소임을 다해 철거되고 그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련원에 보관했던 교육자료와 전시 자료들은 자연스럽게 구리가정교회에 귀속되었다. 즉, 수련원에서 수행했던 역할의 일부를 구리가정교회에 부여 받은 것이다.

수련과 전시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구리가정교회 건물 크기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분들은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지며 새로운 공간을 구상하고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과 준비의 결실이 이곳 별관과 교문리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별관에는 전시실과 대성전, 소성전이 들어선다. 완벽한 전시와 수련 활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음향 및 AV시스템이 필수적이어서 우리는 전시와 수련활동 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공사를 수행했다.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어려운 조건과 상황들이 간혹 생기게 된다. 본 현장은 교회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으로서 관심도가 다른 곳보다 높다. 그로



모두의 염원이 함께하는 공간, 구리가정교회 별관



나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이다.

인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

제안하신 좋은 의견들이 공사에 모두 적용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원과 전체적인 공사 컨셉의 유지를 위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때는 제안해 주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안을 해주실 때 마다 우리는 내용 설명과 이유를 말씀 드린다. 소통시간으로 공사가 늦어질까봐 현재는 교구장님이 교회분들과의 소통을 도와주시고 계시며 우리는 미안함을 뒤로하며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공사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2년 전까지 1시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해 왔지만 현재는 업무수행에 바빠서 운동을 조금 멀리하게 되었다. 그래도 이전에 해 왔던 운동들이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해주고 있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운동을 통해 체력을 늘려보고자 한다.

꾸준한 운동은 개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회사 업무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기억해 주길 바라며 운동을 독려하고자 한다.

최근에 구리시청에서 100억 미만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불시 현장 점검이 나온 적이 있다. 항상 정리 정돈과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는 우리 현장으로서는 자신감이

있었으나 외부 기관에서 나온다는 말에 조금은 긴장감이 들었다. 그러나 긴장도 잠시일 뿐 우리 현장을 본 시청 직원은 지적 사항 없는 현장은 처음 본다고 하며 입술이 마를 때까지 칭찬을 하며 점검을 마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노동부 의정부지청, 산업안전공단에서도 점검이 나왔으나 단 한 건의 지적 사항 없이 청결하고 안전한 현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매일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매순간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타 현장과 비교하여 자랑할만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바로 이러한 청결과 안전관리일 것이다.

안전관리는 항상 중요하다. 현장에서의 큰 사고는 현장만의 사고가 아니다 회사 전체 이미지로 고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모든 현장소장은 안전관리를 현장만의 이슈로 생각하지 말고 회사 전체의 이슈로 생각하며 챙겨 나가야 한다.

지금의 현장이 마지막 관리 현장이라고 생각하며 공사에 임한다. 이러한 생각은 좀 더 힘을 내게 하고 적극적인 동기부여도 해 준다. 또한, 결과적으로 완벽한 공사로 현장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훗날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누가 이렇게 잘 지어 냈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현장소장의 이름이 오르내릴수 있다. 이러한 것이



모두의 염원이 함께하는 공간, 구리가정교회 별관

안보이는 곳 일수록 더욱 완벽을 기하라.

현장소장에게 주는 칭찬과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현장은 2개 현장을 운영하지만 단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소장과 신입사원(황보건)만으로 현장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하루가 무척 바쁘게 흘러간다.

물론, 본사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바로 현장 직원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선원건설은 신입사원 육성을 통해 미래사업을 키워가는 경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에서 신입사원 육성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별관 현장은 현장소장을 제외한 1명이 신입사원이다. 공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전체 과정을 계획하고 처리하고 피드백 하면서 현장 업무를 배우고 있다.

실 틈 없이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신입사원으로서 모든 것을 챙기며 익히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묵묵히 성실하게 잘 따라와 주는 우리 신입사원이 있어서 마음 한편으로 든직함을 느끼고 있다.

공사를 수행하는 나만의 철칙이 있다.

첫번째로, 절대로 하자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적당히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로 나타나게 된다.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추후 하자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키지 말고 직접 하라 이다. 다른 사람을 시키고 미루다 보면 놓치거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품질은 떨어지고 공정은 늘어날 수 있다. 이 두가지 철칙은 꼭

지키고 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켜 나간다면 모두의 염원이 함께하는 공간인 구리가정교회 별관과 교문동 근린생활시설은 최고 품질의 건축물로 준공될 것임을 장담한다.

끝으로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이번 인터뷰를 통해 감사함을 전한다.

인터뷰. 구리가정교회 별관 박부영 현장소장



교문동 근린생활시설

자연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한원집

2020년 7월3일 천주천보수련원 내부에 위치한 한원 집 현장에서는 안전한 시공과 튼튼한 건물로 자리매김 하기를 염원하는 상량식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10월 튼튼하면서 화려한 모습까지 겸비한 한원집이 완공되어 다같이 둘러 보고 자 한다.

자연을 바라보며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한원집

한원집의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온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중 현장의 지휘감독을 책임진 이철용 소장을 통해 한원집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원집의 특별함

한원집은 연면적 137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은 현대적 방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지상2층은 전통적 한옥방식으로 지어진 특별한 건물이다.

2월말 착공하여 약 7개월간의 숨가쁜 공사 일정을 달려서 9월28일 봉헌식을 끝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한원집은 전통한옥 건물이다. 현대식 건축방식으로 지어진 일반건물과 달리 전통 한옥건물은 건축 방식이 다르다. 일단, 한옥은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홈을 파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짜맞추듯이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공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가구 짜기'라 명한다.

한옥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공사이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한옥 전문가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시간과 비용이 일반 건물에 비해 더 많이 발생된다. 그러다 보니 한원집이 규모는 작지만 동일 현대식 건물과 비교하여 공사기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옥은 오랜 기간 건축물이 유지되어야 해서 자재 또한 좋은 것을 사용한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목재의 특성으로 인해 유지보수와 관리에 어려움이 다소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식 건축물보다 긴 공사 기간과 비용, 유지관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한옥의 멋은 이러한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한원집의 매력은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위치에도 있다.

한원집이 위치한 자리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라고 들었다. 땅의 기운이 센 지역으로 공사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씀도 해주셨다.

자연과 가까운 위치라서 건축물로는 좋은 환경이지만 반대로 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경사와 좁은 통로로 인하여 시공에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장마가 약 50일간 되다 보니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절대적 공사 기간도 짧았다.

현판의 숨은 비밀

한원집의 현판에는 숨겨진 특별함이 있다. 한원집을 방문하실 분들은 한번쯤 현판을 자세히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예전에 지어진 한옥들의 현판 글자가 한자로

자연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한원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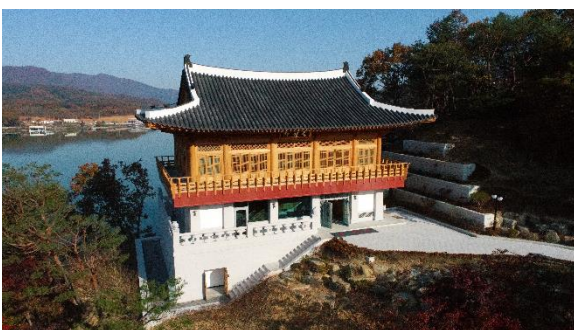
명기했다면 한원집의 현판은 한글로 표현되어 세련미가 더해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 필체는 발주처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님이 직접 써주신 것으로서 한원집의 가치를 한단계 더 올려 주었다고 본다.

한원집은 부엉이가 지킨다.

한원집을 돌아보면 네 귀퉁이에 부엉이 조각상이 위치하고 있다. 부엉이는 음식을 물어와서 집에 쌓아두는 습성을 가진 동물로서 재물이나 부귀를 상징한다고 한다. 맹금류이지만 한원집 부엉이는 맹금류라고 하기에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조각시 일부러 친근감을 주기 위해 통통하고 웃는 모습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부엉이의 설치 위치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 건물에 등을 지고 바깥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위치한 부엉이는



집을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부엉이 조각상이 귀여워 보이지만 위급할 때는 한원집을 지키는 맹금류로 변할 수 있으니 한원집을 방문할 때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될 것 같다. 2층 내부 그림에도 부엉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2층 방문시 부엉이 그림을 찾아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다.

한옥의 매력은 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살짝 올라간듯 올라가지 않은 절제의 미가 바로 그것이다.

한원집에서는 이러한 선의 매력을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처마선을 따라서 간접조명의 은은함이 드러나면서 한옥의미를 밤에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한원집 1층은 전통차를 음미할 수 있는 찻집으로 그리고 2층은 세미나 또는 연회 장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직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목적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한원집의 진정한 멋스러움을 느끼려면 강의 반대편에서 바라봐야 한다. 강 반대편에서 한원집을 바라보면 천주천보수련원 건물 중에 최고의 건물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우기에도 공사를 할 수 있게 지

자연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한원집

붕을 천막으로 씌우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했던 만큼 한원집을 만들어 가는 여정은 힘들었지만 완공된 모습을 보면 힘들었던 것들이 사라진다.

한원집은 선원건설에서 처음으로 한옥 건물을 준공한 현장이다. 그 처음으로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기 까지 동료 직원들의 공이 컸다. 힘들어도 철야를 하며 집중해 준 우리 동료들의 마음이 이곳에 깃들어 있는 듯 하다. 앞으로 한원집을 볼 때마다 동료와 함께 움직였던 시간들이 기억날 것 같다.

인터뷰. 한원집 이철용 현장소장

우리는 선원건설 모델3인방

천희섭 과장, 한동규 대리, 노효동 사원



선원건설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홍보 지면 속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3인이 있다. 천원궁 현장의 천희섭 과장, 노효동 사원, 천승전 현장의 한동규 대리가 그 주인공이다. 만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끝날 줄 모르는 '선원 모델 3인방', 그들의 걸부터 속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위해 지금부터 천희섭 과장은 천, 한동규 대리는 한, 노효동 사원은 노의 호칭으로 표현하였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천 “안녕하세요! 천원궁 현장의 천희섭 과장입니다. 현장에서 무재해를 이루기 위해 현장중심, 근로자

중심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입사 후 용평리조트에 발령 받은 후 만 5년 동안 선원건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안녕하세요! 천원단지에서 4년 반 동안 근무하고 있는 한동규 대리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단지 안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외롭지 않게 도움 받으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노 “안녕하세요! 천원궁 현장의 노효동 사원입니다. 입사 한지는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원궁 현장 직원들이 잘 챙겨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원건설 입사 전에는 무슨 일을 했나요?”

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수라는 생각으로 엑스트라, 택배, 주유소, 노인간병 등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 회사 취업을 꿈꾸며 일명 ‘노가다 잡부’로 알려진 건설업 일용직 생활도 경험하였습니다.”

한 “저 또한 상패와 트로피 만드는 회사부터 ,백화점 구두 판매, 시장 노상 판매 등 사람과 대면하는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걸로 보기에는



천희섭 과장(좌), 한동규 대리(우)

우리는 선원건설 모델3인방

천희섭 과장, 한동규 대리, 노효동 사원



노효동 사원

말도 없고 일만 부러먹는 아랍 왕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때 시장 한가운데서 “아주머니 골라~ 골라 잡아 잡아~!”를 크게 외치며 엄청난 매출을 올렸던 뛰어난 직원이었습니다.”

천 “건설업에 종사하려면 저 처럼 건설업 일용직생활을 해보아야 하는데 한대리는 입사 전 이력사항에 임팩트가 없네요.(웃음)”

한 “사실 저도 천과장 처럼 이전 건설회사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생활을 라인건설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천 “한대리의 이력이 저 못지않게 다양하네요!

하지만 한대리나 노사원이 해보지 못한 저만의 경험을 하나 더 말씀 드려야겠네요. 격변하는 환경과 국제화된 건설 현장에서 꼭 경험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그중에서 중국인 반장을 만나서 언어장벽을 허물어 봐야 진정한 건설인이지요.(웃음)

이제는 2개 국어 이상 못하면 현장에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외국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 “저는 두 분에 비해 경력은 미미해서 코칭을 받으며 두 분과 닮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아서 모델 섭외를 받았나 봐요. 섭외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노 “우선 섭외된 천과장과 한대리의 이름을 듣는 순간 두 분 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촬영이 시작되고 어느정도 긴장이 풀리면서 제가 가장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자신감이 붙곤 솟아났습니다. 일단, 나이와 체력에서 두 분 선배님 보다 우세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걱정이 되지는 않았고, 혹시 너무 사진이 잘 나와서 전문 모델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 하하!

나중에 촬영 마치고 사진들을 보니 실물이 더 낫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웃음)”

한 “ 미리 귀 뚫을 해주셨다면 좀 더 운동을 해서 다져진 몸으로 촬영을 했을텐데 아쉬웠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모델이라는 책임감도 좀 무거웠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본인들의 모습이 담긴 광고물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천 “너무 신기 했습니다. 신문 전면에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저와 동료들의 모습이 담긴 광고를 봤을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구요.”

한 “저는 신문에 나온 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부모님께 그 신문을 보내 드렸어요.(웃음)

부모님도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대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선원건설 모델3인방

천희섭 과장, 한동규 대리, 노효동 사원

“선원건설 최초의 직원 모델로 활동하여 자부심이 클 텐데,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재능은 무엇인지 각자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 “지나칠 만큼 강한 친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화력만 있다면 편하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 “친화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묻고 늘어지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대의를 위해서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용기의 근원이 적극성입니다.”

한 “이것저것 다 따져보아도 꼭 필요한 재능은 자신감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이 최고라는 최면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자기관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몸부터 마음까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서로 마주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며 옥신각신 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며 챙겨주는 모습을 인터뷰 내내 볼 수 있었다. 이들 3인방이 선원건설에 있는 한 친화력, 적극성, 자신감 만큼은 어떠한 기업에도 뒤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글. 혁신기획팀

“각자의 생각이 아주 확고 하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계발 교육에 도전을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이유로 자격 취득하기가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의 자격증은 꼭 취득해 보고 싶습니다.”

천 “먼 미래 일수 있지만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지금보다는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2021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물론,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최우선으로 건강부터 챙기겠습니다.”

벽돌 마감 건축물 누수 발생 및 방지 대책

1. 선정이유

“점토벽돌은 단열 효과, 습기 조절, 원적외선 방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유의 질박한 질감과 발색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교회나, 주택, 학교 등의 외장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에 반해 창호 주변의 누수에 대한 고질적인 하자를 갖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건축적인 미관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했던 점토 벽돌의 단점은 설계와 시공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누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건축주가 원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선원건설은 창원가정교회 공사 수행 후 점토벽돌 누수로 인해 장기간의 하자보수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정확한 기술적 원인 규명 없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수한 결과 막대한 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고객에 대한 신뢰도만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선원건설에서는 본 하자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전사적 사례 공유를 통해 품질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회복을 이루고자 한다.



그림2-1 누수 창호 표시

2. 누수 발생 사례

1) 창원가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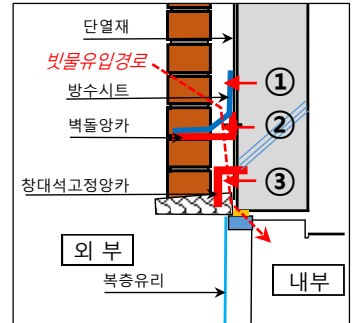


그림2-2 창 상부 철거 사진 및 단면

○ 창원가정교회 누수 원인

- 가. 창호 길이 30m를 감안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방수시트①의 방수 기능 상실
- 나. 창대석 고정 양카가 상하부②③위치에 설치됨에 따라, 양카②의 하부 구간이 빗물에 노출
- 다. 옹벽 하부의 크랙 및 각종 철물 등이 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 유입이 원인



그림2-3 누수 창호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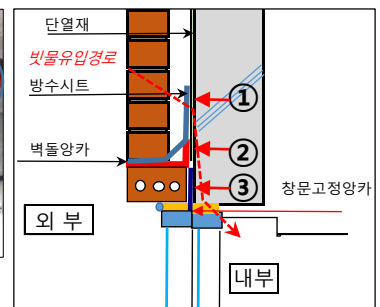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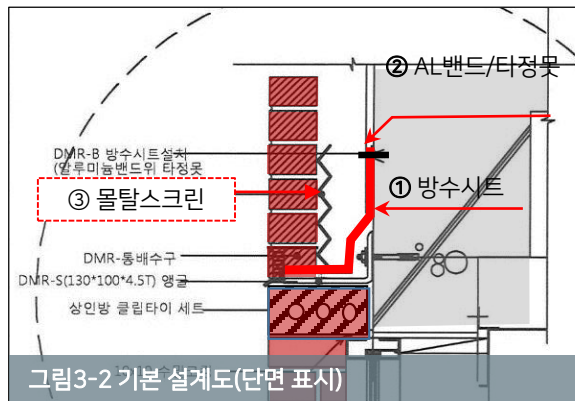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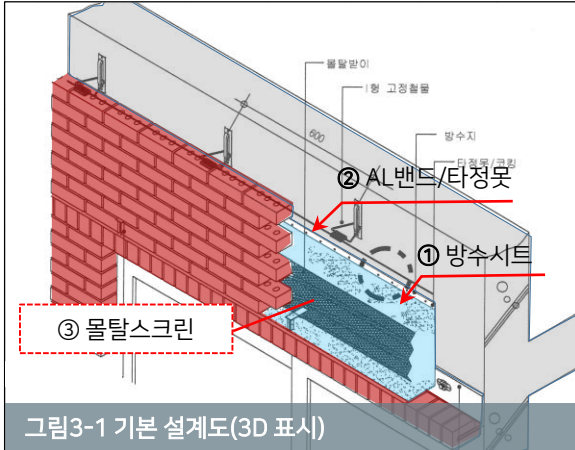


그림2-4 상부 철거 사진 및 단면

벽돌 마감 건축물 누수 발생 및 방지 대책

2) 해남가정교회



○ 해남가정교회 누수 원인

- 가. 벽돌 고정 양카②에서 몰탈이 노출된 것은 방수 시트①이 훼손되어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입증
- 나. 그림 2-4의 사진과 같이 창호 고정 철물③은 외 벽에 흐르는 빗물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함
- 다. 보 하부의 크랙 및 각종 철물 등이 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 유입이 원인임

3. 기준 설계도의 문제점

1) 설계 도서 방수 시트(DMR-B) 고정 방법

가. 옹벽에 고정 방법 - 알루미늄 밴드 위 타정못으로 고정

나. 방수 시트 연결 방법 - 창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100mm이상 겹침 이음

2) 설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법


문제점	AL밴드 및 타정못이② 벽의 흐르는 빗물을 차단할 수 없다.
개선 방법	에폭시 본드/방수시트/AL밴드+타정못/밴드 위 실리콘
문제점	방수지① 100mm겹침 이음으로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없다.
개선 방법	방수지 이음은 인두 이음 또는 평접기 이음 + 에폭시 본드

4. 현장 시공 방법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방수 시트 고정 순서

- 가. 벽에 에폭시 본드 바름
- 나. 방수 시트 부착
- 다. AL 밴드 및 타정못으로 고정
- 라. AL 밴드 위 실리콘 처리

2) 방수 시트 이음 방법

- 가. 인두 이용
- 나. 접기 이음() + 에폭시 본드

3) 고정 양카가 동일 선상에 2종류가 존재할 경우나, 기타 복합적 마감에 있는 경우는 창틀의 위치를 옹벽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해야 한다.

4) 몰탈스크린 확인

그림 4-1의 몰탈 노출은 그림 3-1~2의 몰탈스크린③이 시공되어 있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수

벽돌 마감 건축물 누수 발생 및 방지 대책



그림4-1 몰탈 노출

시트①를 외부에 노출시켜 방수 기능을 잃어버린 사례임

5) 창대석 (석재 및 점토벽돌)이 기준 벽면 보다 돌출될 경우

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부에 마이너스 압을 받기 때문에 경사 각도가 크지 않을 경우 빗물이 창대석을 통해 내부로 유입된다.

나. 부착 창대석에 고정하는 방수지는 반드시 창대석에 에폭시 본드를 바른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창 상부 보 관리의 유의 사항

그림 4-2, 4-3, 4-4과 같이 거푸집 고정용 각종 철물



그림4-2 폼볼트 처리 불량



그림4-3 철선 미제거

그림4-4 웅벽 크랙

과 크랙은 빗물이 유입되는 통로이며, 우리가 알지 못 했던, 흔히 말하는 고질적 하자 원인이다. 점토 벽돌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벽돌 줄눈, 선홈통 주변, 창호 코킹 등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만 할 뿐 상기 원인은 생각 하지 않는다. 창호 길이가 1m 이상 되는 창호의 상부보 대부분에는 형틀과 관련된 각종 철물이 산재해 있고, 크랙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창 고정 철물 설치 유의 사항



그림4-5 창호 고정 철물 위치 선정 오류 사진 및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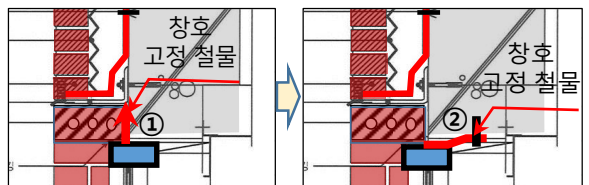


그림4-6 철물 위치 정상적 시공 단면

그림 4-5의 사진과 단면은 웅벽 외벽에 창호 고정 철물①을 시공한 예로, 고정 철물이 빗물 유입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잘못 시공된 사례이다.

따라서, 그림 4-6과 같이 웅벽 중심에 창호 철물②을 고정해야 한다.

현장에 상주하는 엔지니어는 기능공들을 사전에

벽돌 마감 건축물 누수 발생 및 방지 대책

교육하고, 지시한 바와 같이 시공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만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5. 하자 보수 사례

1) 창원가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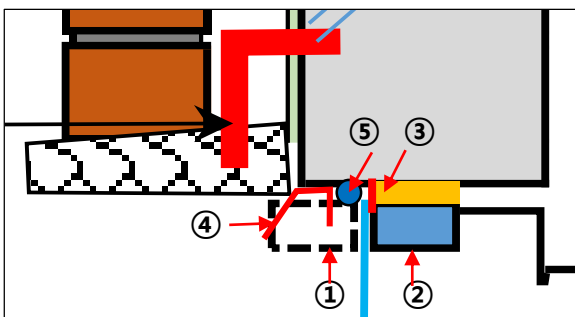



그림5-1 보수 단면

가. 창 상부 보에 크랙을 보수하고, 거푸집 관련 철물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한 뒤 면을 고르게 한다.

나. ①번에 위치해 있던 창을 ②번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고, 상부 공간을 사출한 뒤에 실리콘③으로 마감 처리한다.

다. 창이 이동한 공간에 ④번 ()과 같은 빗물 차단 물딩 (우레탄본드)을 설치한다.

라. 빗물 차단 물딩④과 이동한 창호②사이에 실리콘⑤으로 마감하여 빗물을 차단한다.



그림5-2 보수 사진 - 창틀 이동



그림5-3 보수 사진 - 유리 결합

2) 해남가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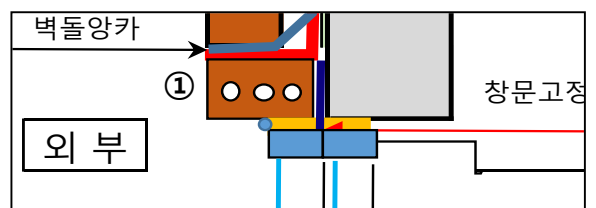


그림5-4 기존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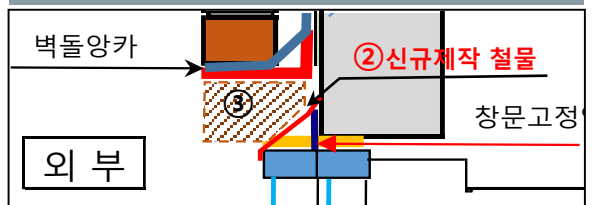



그림5-5 보수 변경 단면

가. 벽돌①을 철거한 뒤 보의 크랙을 보수하고, 거푸집 관련 철물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나. 그림 5-5 신규 제작 스테인레스 철판② ()을 제작 그림과 같이 설치함으로써 내부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한다.

다. 벽돌을 그림 5-5의 ③과 같이 절단하여 설치함으로써 보수를 완료하였다.



그림5-6 철판 설치 사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정부는 지난 6월에 총 120조원 상당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년 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하여 15조원 상당의 다각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다카-마이멘싱 도로사업(5억 달러)과 다카 외곽 순환철도, 미얀마 달라 신도시 시범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수주 목표는 36조원이지만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위해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펀드 1조 5천억원,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4천억원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프로그램 1조 8천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10조 9천억원 상당의 정책 금융기관 보증, 대출, 경협중진자금도 해외 수주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핵심 프로젝트 외에 새로운 신규 유망 해외 프로젝트 추가 발굴을 위한 지원에도 역점을 둔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은 탓인지 3분기 내 해외수주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필리핀 남북철도공사 1공구(3,838억원)와 2공구 공사(3,636억원)를 각각 수주했고, 같은 현장의 차량기지 건설공사(3288억원)를 포스코 건설이 단독 수주하였다. 현대건설은 3조

원 규모의 이라크 바그다드 도시철도 사업도 수주하였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수소첨가분해시설 증설 프로젝트(1926억원)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현대엔지니어링]

현재 해외 수주 시장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10년간 해외 수주는 2010년 716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4년 단기 정점을 지난 후 급격한 하락추세이다.

2017년 290억 달러, 2018년 322억 달러는 전성기의 2분의 1 수준이며, 2019년도는 더욱 심해 223억 달러로 극히 부진했다. 이런 결과에는 건설사들이 국내 수주 활동을 강화하면서 해외 사업은 내실화와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바꾸며 수주활동 규모를 축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해외 수주가 양적 성장과 달리 중동·아시아 지역, 플랜트(산업시설) 분야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플랜트 분야의 발주물량이 적어지면 해외 건설 실적도 급강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4년부터 저유가 기조에 따른 주력지역 및 공종(플랜트)의 침체로 과거와 같은 해외수주 호황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우리의 주요 진출 대상국인 개도국들의 현지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자국기업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경쟁국인 중국이 막강한



필리핀 남북철도 사업 [현대건설 +대림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자금력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영역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과 유럽 등의 선진기업들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급시장과 고부가가치 영역 모두에서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해외 인프라 시장은 정부재원 사업 발주에서 벗어나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적 요소 만큼이나 기술력과 금융조달능력 등 비가격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단순 도급에 주력해 온 우리 기업은 금융조달능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 수주경쟁력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도 그나마 여건이 괜찮은 대형 건설사와는 달리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원 부족, 정보수집 어려움, 국내기업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 수주, 해외건설 전문 인력 유인책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외 수주 활동이 어려워 국내 건설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건설에서 중견/중소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8%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부동산 붐과 그 여파 등으로 이 점유율이 약 13%까지 올라 간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최근의 전체적인 해외건설 침체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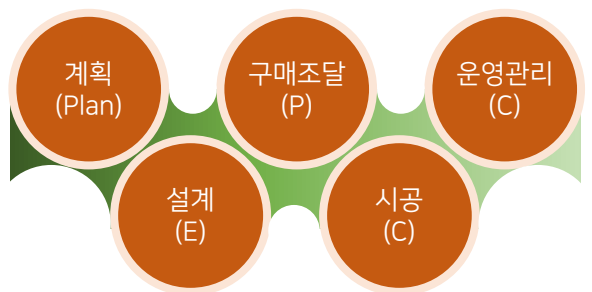
서 중소 중견기업의 비중도 2016년 8.50%, 2017년 6.90%, 2018년 5.61%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에게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은 대형 건설사의 보조건설사로서, 혹은 지분참여 정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도 대형 건설사와 동반 진출하는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약진이 있어야만 해외 수주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외 진출건설사들의 약진이 있어야만 해외 수주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외 진출 및 수주 전략과 함께 공동 보증제도 개선을 포함한 금융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건설 시장에서 국내 건설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시공 등 건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향해 빠르게 전환한다는 방침을 지난 9월 3일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좁게 EPC(설계, 구매조달, 시공)를 관리하는 활동(Construction Management: CM) 또는 가장 좁게는 시공과 대비되는 설계(E) 부분만을 말하는 시공의 부수 활동인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광의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개념으로 확대하여 시공과 연계된 초기 단계의 계획 설계 및 시공 이후의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는 건설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Project Management(PM: 건설 전 과정 통합관리)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를 도입하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하고 시공사가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시공 책임형 CM을 확대하고, 시공사가 BIM을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이를 시공 전 단계에 활용한 턴키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공사 위주로 참여하는 입찰 과정에서 설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향후 설계사 주도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사는 시공 역량을, 시공사는 사업관리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이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과 턴키 입찰시에 스마트기술 적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발주 및 사업자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스마트 턴키 발주도 추진한다.

2천억 규모의 스마트 신기술 R&D를 추진하면서 연내



마련될 PM 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내년에는 사업 계획부터 시공, 운영까지 포함하는 PM 시범사업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국내 대형 건설사도 이런 흐름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직면하게 될 노동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수주 분야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쌍용건설과 티푸스코리아, 생고뱅이소바코리아와 함께해 구조 틀로 사용되는 철재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으로 인한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손실과 결로 발생에 취약한 부분을 해결한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해서 건식외단열 시공 기술을 개발하여 건설 신기술 제901호를 취득했고,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옥탑 구조물에 하프-프리캐스트 콘크리트(Half-Precast Concrete)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고 현대건설은 음식물 처리장, 하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악취관리 시스템 '홈스(HOMS, Hyundai Odor Management System)'를 개발했다.

미래 건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내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있다.

긍정적이고 당연한 진로라는 시각과 함께 금융지원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관점과 함께 로드맵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서면 엔지니어링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고,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다.

시공사가 설계와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는게 설계사가 시공력을 갖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성과 효율성 중심의 기술력 향상에 편중되어 온 건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산업의 흐름을 변화시켜 설계, 엔지니어능력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핵심소재 등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기술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을 거쳐 선진국과 아시아의 중심으로 확대될 해외 건설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저력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글. 연구개발팀 엄상훈 부장

* 본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 되어 있습니다.

< 기고 인터넷 주소: <http://omn.kr/1q2ux>>

< 사내 활동 >

신입사원 워크숍 실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3박4일간 강원도 정선군 소재 파크로쉬 리조트&웰니스에서 선원건설 사원 직급 대상으로 신입사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사원간 소통과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기본기를 다졌다.

또한, 처음 실무에 배치되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강사가 아닌 내부 임원 및 현장소장들이 직접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강의를 통해 전달하였다.

마지막 날 '뮤지엄 산'(강원도 원주시 소재) 견학으로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직접 체험해 보며 빛과 공간이 주는 여유로운 울림으로 영감을 채울 수 있었다.

'직원이 자산'이라는 회사의 기조에 따라 기획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고 직원간 화합을 바탕으로 향후 선원건설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 이모저모 >

생일을 축하합니다



◎ 11월 생일

현장	천원궁순례길	추완종 차장	양. 11.04
본사	혁신기획팀	오현영 차장	양. 11.05
본사	연구개발팀	김성열 주임	양. 11.07
본사	공무팀	안중현 과장	양. 11.08
현장	장항생태산단	오성윤 과장	양. 11.11
현장	세도소규모	손판국 차장	양. 11.20
현장	천원궁	김선문 소장	양. 11.22

◎ 12월 생일

현장	천원궁	이주현 주임	양. 12.03
현장	천원궁	임선빈 부장	음. 10.22
현장	통영죽림	맹관재 차장	양. 12.07
본사	경영지원팀	송현석 주임	양. 12.09
본사	고객AS팀	신강수 부장	양. 12.15
본사	연구개발팀	엄상훈 부장	양. 12.16
현장	고속32호선	최지웅 부장	양. 12.16
본사	재무팀	이홍진 사원	양. 12.18
본사	공무팀	정경희 과장	양. 12.20
본사	공사팀	이창근 부장	음. 11.13
현장	천원궁	천희섭 과장	양. 12.28
본사	임원	김장회부사장	양. 12.30

웹진 표지 사진 공모전 실시

선원건설의 소식을 전하는 웹진의 생생한 현장 모습이 담긴 표지 사진을 공모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창의력과 열정을 표지사진 공모로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모별 제출 요청 사항

① 표지 사진 : 사진 및 간략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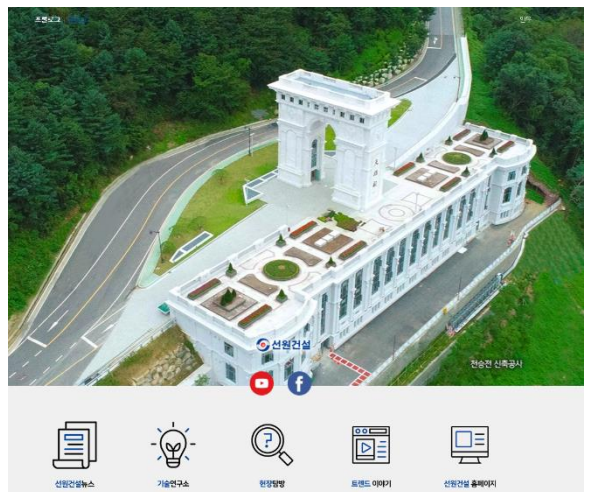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hs58md@sunwon.co.kr)

✓ 공모일자: 2020.11.20~2020.12.10

✓ 시 상: 1등 1명 시상(상금)

공식 블로그 OPEN



선원건설 공식블로그가 2020년 10월 정식 오픈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sunwonad>

